

낙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윤 민 호
지리산낙농협동조합 조합장

지난 십년동안을 되돌아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친것 처럼 많은 진통을 겪는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저임금의 그늘막 속에서 안주하던 산업 체계가 하루 아침에 그늘막이 제거되면서 노사분규등 숱한 어려움을 거치면서 환경 적응력이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고사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요즈음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국제화에 밀려 산업의 재편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낙농업계도 그동안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낙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여러 변신을 하여야 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해야 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3D현상이 일 반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개편과 변신이 뒤따 르지 않으면 고사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서 우리 낙농업계의 생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낙농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결집된 힘으로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것일 것이다.

우리 낙농육우협회는 체계화된 농민단체중 최고의 조직력과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낙농가들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줄 때 국내외적인 도전과 우리 스스로의 변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어느 한편으로는 타농업 분야보다는 행복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낙농업계는 타 농업분야 보다 조직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각 지역 단위의 낙우회 조직과 도 단위의 도지회 조직 또 중앙단위의 협회 조직과 또한 전국에 거의 20여 개의 낙협이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 낙농가들은 이러한 조직들에 거의 동참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조직화 되어 있는 조직의 힘을 어떻게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각 지역에 있는 낙협은 그 구성원의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특성상 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간의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지역 국한적이어서 낙협들이 낙농업계를 대표할 수도 낙농가들의 모든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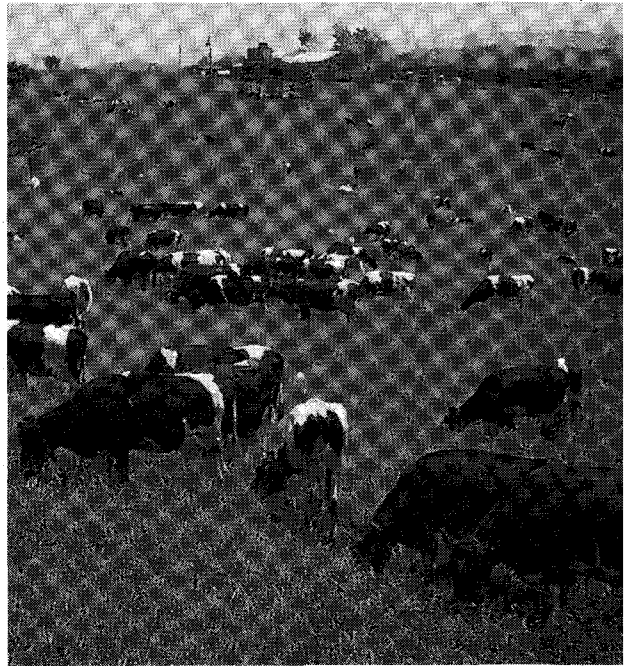
오직 낙농육우협회 만이 전국의 낙농가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낙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농육우협회도 일반적인 농민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나 구성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협회로써 수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추구하는 것, 또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

또한, 일반 농민단체나 자생단체를 예를 들어 뱀에 비유하는 사람도 많다. 뱀의 머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몸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조직을 끌고 가는 리더가 잘못가면 몇만명의 조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것이다.

농민운동은 농민에 의해서 잠재워 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협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위의 여러 취약점이 있음에도 우리는 협회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고 또한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우리 협회가 앞으로 모든 낙농가들을 위해서 움직여 줘야 할 몇가지를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낙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낙농업계는 다른 산업과 달리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3D 현상을 촉발케하므로 따른 변신이 특히 요구된다.

자가노동력에 의한 규모를 갖춘 낙농업이 되지 않고는 낙농산업은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우리 낙농가들은 많은 고정자본의 투자를 하지 않고는 낙농업을 영유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이는 고정자산의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정자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농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협회는 구성원 개개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정자산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일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한다.

둘째, 보다 많은 정부의 투자를 위한 공격적인 농정 활동이 필요하다.

낙농업의 구조개혁은 결국 규모 확대를 위한 고정자본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고정자본의 과감한 투자없이는 낙농업의 영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회는 보다 많은 재원마련을 위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농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낙농업을 영위하는데 규제가 아닌 육성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되겠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건의문도 내고 또한 시위를 통한 노력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제도는 육성을 위한 제도보다 규제를 위한 부분이 더욱 더 많다.

이제 정부에서도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의 제도를 재검점하여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넷째, 지도자들의 교육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각 지역의 소그룹 단위의 낙우회나 연합회의 기능은 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 지도자가 역량이 부족할 때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그 그룹은 일순간에 오합지졸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 자생단체의 특징이다.

조직이 살려면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교육 및 소양이 제대로 되어야 조직이 살아난다. 우리 협회도 각 지역의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교육 및 위치 확보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정사안에 대하여 소그룹단위의 특성있는 조직체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낙농부분은 농업의 기계부분, 사료의 TMR 부분,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펄퍼제도 등 농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과 조직의 결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협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줄 수는 없다.

협회는 어느 한 특정분야에 중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그룹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조직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기관이나 연구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함으로써 낙농업의 각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써야 한다.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데는 돈이 필요하다. 돈 없는 조직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협회는 재정의 자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정의 자립이 농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때 만



다가오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다. 우리 낙농가들은 우리의 힘을 협회로 모두 모아주고 협회는 우리가 모아주는 힘을 유효 적절하게 조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 때 우리 낙농산업은 시대에 맞는 전진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 사업으로써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삶의 터전으로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보다 공격적인 협회가 되어 줄 것을 바란다.



이 협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자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협회는 계획적인 조직과 대외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국제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겪은 국내적인 파고는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협회는 국제적인 파문이 우리에게 미칠 파고를 미리 미리 홍보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다른 외국의 협회와도 활발한 교류가 추진 되어져야 하고 해외의 정보를 신속한 교범으로 흡수하여 우리 농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능동적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해 줘야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가지 의견을 서술했지만,

우리 협회는 어디까지나 자생단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생단체는 조직의 관리나 운영이 민주적, 공개적, 미래지향적 일때 만이 조직원들의 호응을 받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조직이 무너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사명감과 직업관이 선명해야만 이 조직은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재의 육성과 양성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짐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모든 문제에 접근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협회의 앞길은 순탄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공격적일때 조직원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참여와 호응은 협회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다. 우리 낙농가들은 우리의 힘을 협회로 모두 모아주고 협회는 우리가 모아주는 힘을 유효 적절하게 조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때 우리 낙농산업은 시대에 맞는 전진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 사업으로써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삶의 터전으로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보다 공격적인 협회가 되어 줄 것을 바란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낙농기술 순회강습회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낙농기술 순회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낙농기술 순회강습회

나. 주 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다. 주 관 : 협회 도지회(연합지회)

라. 후 원 : 한국낙농육우협회

마. 강의내용

강 의 내 용	시 간	강 사
접 수	30 분	협회 회장 또는 전무 농림수산부 전문가 초청
낙농산업동향	30 분	
낙농정책 방향	30 분	
유질향상 방안 또는 낙농경영 개선 방향	90 분	
토론 및 질의 응답	60 분	

바. 강습회 일정

일 자	지 역	주 관	전 화	장 소
6월 16일(목)	전북 전주	전북도 지회	(0652) 251-2363	미확정
20일(월)	충남 천안	충남도 지회	(0417) 62-1436	"
22일(수)	강원 원주	강원도 지회	(0371) 42-1791	"
24일(금)	경기 화성	해태유업연합지회	(0331) 36-9549	화성군농촌지도소
27일(월)	경남 마산	경남도 지회	(0551) 99-3396	마산 축협
28일(화)	전남 나주	전남도 지회	(0613) 34-7705	미확정
추후 결정	경북 경산	경북도 지회	(053) 813-3771	"
추후 결정	충북 음성	충북도 지회	(0446) 877-0889	"
추후 결정	경기 북부지역	건국유업연합낙우회	(02) 444-0880	"

장소, 시간일정 등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각 도지회 또는 연합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